

WSJ,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조명

“군사정부와 싸우던 시절 학생들에겐 영웅”
우상호 의원 “지금은 이데올로기 신봉자 아냐”

미국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WSJ은 이날 ‘감옥에서부터 대통령 비서실까지:과거 급진주의 인사가 남북 화해 형성을 돕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학생운동 시절부터의 인생 역정과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한국내 진보 및 보수세력의 임 실장에 대한 엇갈린 평가 등을 전했다.

신문은 임 실장이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던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평양 축전참가’를 지휘하고, 이 사건으로 당시 구속됐던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신출귀몰하게 경찰의 수배

망을 피해 다녔던 임 실장이 당시 학생들에게는 “영웅과 같았다”는 기억을 전했다.

임 실장은 1980년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사정부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학생운동가들과 나란히 시대를 보냈고, 이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회의를 불러놓고 일부(학생운동가들)에게는 북한을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경험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과거 학생운동가들 가운데(임 실장이) 당시 “가장 유명했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대통

령 비서실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 노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내 보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내 비판적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임 실장은 과거 수년간 미국과의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2008년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을 남북화해의 장애물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 실장은 과거 과격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북한과의 긴장을 끝내기로 결심한 애국주의자라는 주변

지인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임 실장은 이데올로기 신봉자가 아니며, 꽤 실용적이며 토론을 좋아한다. 30년 전 임종석과 지금의 임종석은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는 말을 전했다.

전 주한미국대사(리처드 스나이더)의 아들인 미 스탠퍼드대 쇼펜스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는 2000년대 초반 임 실장을 만났던 것을 거론하면서 “그는 훨씬 더 신중했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열망했고, 더욱더 실용적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언론자유지수 43위
작년보다 20계단 상승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제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20계단 상승한 43위를 차지했다.

RSF는 25일 오전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2018 세계언론자유지수’를 공동으로 공개하고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한국은 43위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인 일본(67위), 중국(176위)은 물론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45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우리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가 2016년 70위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에는 63위를 기록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셰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지부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RSF는 이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한국 기자와 시민사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자유지수에서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보다 두 계단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현 정부의 소통 노력과 한국 언론사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해리스 사령관, 주한 미대사 재지명”
WP “폼페이오가 트럼프에 건의, 본인도 동의”

주호주 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이 주한 미국대사로 다시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 호주대사 인선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대행으로부터 전날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비숍 장관은 기자들에게 “해리스 사령관이 호주대사로 오는 것을 환영하긴 했지만, 미국이 한반도에 중대한 도전과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매우 견고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이 매우 적절한 대사를 대체 임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주호주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사령관을 주한대사로 재지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WP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리스 사령관의 주한 대사 지명을 건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면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리스 사령관을 주한 대사에 지명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인사 발표는 없다”고만 답했다.

지난 2월 호주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사

령관은 당초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정부가 갑작스럽게 청문회 취소를 요청하고 이를 외교위가 받아들였다.

해리스 사령관도 이미 폼페이오 지명자에게 기꺼이 주한 대사로 임무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주한 미국 대사는 마크 리퍼트 전 대사의 이임 이후 16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마크 내퍼 대사대리가 임무를 대행하고 있다. 북측의 정부 관계자들은 WP에 폼페이오 지명자가 주한 대사 공석을 채우는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국면에서 장기간 주한 대사를 지명하지 않은 데 대해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해리스 사령관이 주한 대사에 실재 지명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준비 중인 국면에서 현직 ‘4성 제독’인 거물급 인사를 한국에 긴급 투입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해리스는 지난 2015년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암석과 암초 등을 매립해 온 중국을 향해 ‘모래 만리장성(Great Walls of Sand)’을 쌓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후 중국 언론은 일본계인 해리스가 일본의 편을 든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토론토 차량돌진 희생자 추모

전날 차량 인도 돌진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영 스트리트 현장의 임시 추모단에서 24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다. 23일 낮 토론토의 변화가인 핀치 애비뉴의 영 스트리트에서 흰색 승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 행인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우리 국민과 동포 등 3명을 포함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다.

/AP/더 캐나디언 프레스=연합뉴스

하반신 마비 장애인, 마라톤 완주

특수 슈트 입고 36시간46분만에 골인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36시간 46분을 달려 런던마라톤 풀 코스(42.195km)를 완주했다. 대회 기준 기록을 넘겨 ‘완주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그를 향해 뜨거운 함성이 쏟아졌다.

BBC,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24일(한국시간) 런던마라톤

최초로 42.195km를 완주한 장애인 남성으로 기록된 사이먼 카인들리사이드(35·영국)의 사연을 소개했다.

카인들리사이드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10시 출발해 23일 오후 10시 46분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용자의 무게 중심 변화를 감지해 고관절과 무릎 관절처럼 움직이는 ‘외

골격 슈트’를 입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딘 카인들리사이드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내가 해냈다”고 외쳤다. 런던마라톤을 최초로 완주한 장애인인 클리어 로마스다. 척수 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된 로마스는 2012년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16일 동안 레이스를 펼쳤다. 앞서, 카인들리사이드는 ‘남자부 최초’ 기록을 썼다.

카인들리사이드는 2013년 기능 신경 장애와 신경 교종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